

'아임 유어 파더' 빌런의 탄생

문화향기

김강

호남대 영어학과 교수



스타워즈. E.T.와 더불어 현대영화사의 기념비적 SF영화로 평가받는 명불허전 작품이다. 스티븐 스필버그와 '첩첩쌍쌍'적인 조지 루카스 감독에 의해 1977년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을 시작으로 2005년 '에피소드 3: 시스의 복수'까지 6개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개봉됐다. 이후 2015년 '에피소드 7: 깨어난 포스', 2017년 '에피소드 8: 라스트 제다이' 등 2편의 후속편이 추가됐다. 총 8편에 이르는 우주 전쟁 시리즈가 40여 년에 걸쳐 완결됐다. 광활한 우주가 배경인 공간적 스케일은 물론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 통시적 내러티브 서사 또한 이전 스크린을 압도했지만, 제작 방식도 유별났다.

시리즈 6편의 개봉이 순차가 아닌 역순으로 이뤄졌다. 에피소드 4에서 6에 이르는 후반 3부작이 먼저 제작된 후에 전반 3부작 격인 1에서 3편의 에피소드가 나중에 발표됐다. 마치 영화 백 투 더 퓨처처럼 미래가 과거로, 과거는 미래로 뒤바뀌었다. 따라서 영화적 기교와 스토리 전개상 과거를 다룬 에피소드가 미래 것보다 세련되고 치밀하다.

영화의 생존력은 더 끈질기다. 오리지널 스타워즈에서 등장인물이나 스토리 일부를 변형하여 제작한 로고 윈, 한 솔로 등 스피노프 영화와 애니메이션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무려 15편 이상에 달한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에 맞서는 디즈니 플러스를 살리는 생명줄인 셈이다.

다스 베이더. 스타워즈 시리즈를 하나의 역사로 엮어주는 안타고니스트 주인공이다. 일본 중세 쇼군의 투구와 갑옷을 연상시키는 블랙 마스크와 블랙 망토, 가슴에 달린 호흡유지 장치에서 공명하는 거친 숨소리가 매혹적이다 못해 전 세계적 유행이 되었다. 미국 대학 미식축구 최종 결승전에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서 벌어지는 로즈볼 퍼레이드에서 화이트 무장의 스톰 트루퍼스를 거느린 그의 위용은 영화처럼 압권이다. 지구촌 코스프레 이벤트에서 최상의 인기를 누리는 캐릭터 중 하나다.

이러한 현실의 인기와는 달리 영화 속 다스 베이더의 세속적 삶은 비극적이다. 그의 본명은 아나킨 스카이워커. 그의 존재는 에피소드 3편에서 본격적으로 부각한다. 은하 공화국의 분열로 클론 전쟁이 시작된 이후다.

아나킨은 우주 영웅 제다이 임명을 기대했지만, 마스터 요다를 비롯한 기사단의 뜻하지 않는 결정에 좌절하고 반발한다. 절대적 힘을 보장한 어둠의 포스에 이끌린다. 임신한 아내 파드메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했다. 갈등이 깊어진 스승 오비완과의 결투에서 극심한 부상을 입은 그는 악의 황제 덕분에 생명을 얻게 되고 위협적 외모와 야심적 성격을 지닌 우주 최악의 빌런으로 재탄생한다.

'아임 유어 파더'. 스타워즈가 대중문화에 새긴 최고의 명대사다. 에피소드 4편에 처음 등장하는 루크는 제다이 기사 케노비에게서 제다이는 평화의 수호자이며, 자신이 제다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펠콘호 선장 솔로의 도움으로 죽음의 별에 잡혀있는 공주를 구출하여 활약한다.

에피소드 5편 제국의 역습에서 제국

군 총통 다스 베이더는 레아 공주가 이끄는 반란군을 진압하려 맹렬한 공격과 추격을 거듭한다. 루크는 오비완의 예언대로 요다를 찾아가서 제다이 훈련을 시작한다. 친구들이 고통받는 미래를 본 루크는 그들을 미끼로 우주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품은 다스 베이더와 대면한다. 치열한 결투 중 다스 베이더가 루크에게 던진 핵폭탄 선언, 아임 유어 파더! 가족을 위해 이블 파워가 된 아버지와 어둠의 악을 제거하려는 아들이 숙명적 원수가 되는 비정한 순간이다.

고스트 햄릿.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 햄릿의 아버지다. 극의 중반까지 미스터리한 긴장감을 제공하는 양념처럼 출현한다. 한밤중 불쑥 나타난 자신을 초자연적 유령이나 나약한 심신의 허상으로 여기는 아들에게 '아임 유어 파더'라고 설득한다.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폭로하며 아들의 복수심을 자극하고 행동을 부추긴다. 사라질 때마다 왕관과 아내와 목숨을 빼앗긴 자신의 비운을 '기억'하라고 다그친다. 당장 복수가 급하지만 우유부단한 아들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조국과 정순신. 언론을 인용하자면, 두 사람의 '아임 유어 파더'는 현대판 아 빠찬스의 끝판왕이다. 자식의 환골탈태 경쟁을 위해 불법과 불의를 스스로 선택한 무서운 빌런 격이다. 입시비리와 학폭소송, 비겁하고 저열한 개입이다. 그래서 법의 꾸짖음도 준엄하다. 더 글로리의 복수가 그리도 통쾌한 이유다.

오직 엘리트층을 추종하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폐단,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특권만 누리려는 그들의 부패와 해악이 언제쯤 사라질까.

아임 유어 저스티스, 아버지로서 올바른 자식을 위한 간절한 기도다. 그 포스가 항상 당신과 함께하기를!

社說

조합의 미래 위해 소중한 한 표 행사를

오늘 제3회 동시조합장 선거

8일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이번 선거에는 광주·전남지역 298개 투표소에서 광주 18명, 전남 182명 등 모두 200명의 농·수·축·산림조합장을 선출한다. 수입개방과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 농·축·수산업과 임업은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어려운 상황이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오늘 치러지는 선거에서 조합원 모두가 지역 농·수·축협은 물론 임협까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맘 흘릴 책임자를 뽑길 기대한다.

이번 선거는 혼탁했던 조합장 선거 풍토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세 번째 치러지는 선거다. 선거운동이 제한되고 규제 또한 어느 선거보다 엄격한 데다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불법과 혼탁 속에서 오직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선거운동을 벌여 온 후보자에 박수를 보낸다. 조합원들도 투표에 앞서 후보자의 공약과 살아온 궤적

등을 따져 이미 지지후보를 결정했을 것이다.

농·수·축협과 임업 등 협동조합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다. 이번에 새로 선출되는 조합장은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통해 조합원과 함께 지역의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농·어민을 돕고 조합원의 복지도 책임진다. 조합원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경제사업 지원도 조합의 역할이다. 조합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조합원의 삶의 질은 물론, 조합의 미래까지 좌우되는 셈이다.

이제 선택의 순간만 남았다. 올해도 농·수·축산업의 미래는 밝지 않다. 산림자원의 선순환도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모두는 나의 한 표가 곧 나와 조합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갈수록 폐쇄해지는 농·산·어촌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과연 누가 책임자일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자신이 뽑을 후보가 조합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지,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나의 한 표가 조합의 미래를 이끈다.

양식 어가 자연재해 정책 지원 늘려야

보험가입률·지원금 낮아

여주시남면, 돌산 등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물고기 폐사 원인이 '저수온'으로 판정돼 보상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전수 피해 조사가 실시된다.

하지만 피해 어가중 저수온이라는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가 2어가에 그친데다 재난지원금 규모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양식 어류 폐사의 원인에 대한 유관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가막만 남측해역의 저수온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기준 신고된 피해는 돌산과 화정, 남면의 64어가에서 참돔과 감성돔, 줄돔 등 어류 461만 4000마리가 폐사해 피해 금액이 92억 6700여 만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데 전체 피해 어가 중 2어가만이 재해보험에 가입될 정도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한데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나머지 62 피해 어가도 현행 규정상

어가당 지원금 상한액이 5000만 원에 불과해 피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양식 어가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저수온 피해 발생빈도가 낮은데다 보험료가 비싼 특약으로 분류된 때문이다.

어가들이 경제적 부담때문에 보험 가입을 꺼려 이번에 큰 피해를 입게 된 셈이다. 여수지역을 포함해 전남 전체 양식 어가 4394곳중 1524어가만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은 34.7%에 그치고 있다. 이도 태풍과 적조 등과 같은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 발생시 보상해주는 주계약 가입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재해보험 미가입 어가에게 지원될 재난지원금 상한액도 5000만원에 그쳐 실제 큰 피해를 입은 어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후 변화로 인해 태풍과 적조, 고수온에 이어 저수온 피해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자연재해 보험료 지원 폭을 확대하고 재난지원금액도 상향조정하는 등의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6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힌두교 공동체의 여성들이 전통 붓맛이 흘러 축제를 맞아 얼굴에 색가루를 칠한 채 카메라를 향하고 있다.

카라치=AP/뉴스시스

서석대



"나는 서른셋, 지방대학 시간강사다. 내가 졸업한 대학에서 1주일에 4학점 인문학 강의를 한다. 내가 강의하는 학교의 강사료는 시간당 5만 원이다. 1주일에 20만 원, 한 달에 80만 원을 번다. 그나마 방학엔 강의가 없다. 그 돈으로 학자금 대출에서 한 달 20만 원을 떼어 가고, 대출금 상환과 공과금을 더하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10만 원이 고작이다. 이 걸로 남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신용 등급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한 지 오래다. 내가 88만 원 세대보다 더 힘들게 살

쇼타로의 조언

지난 2015년 김민섭이 펴낸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는 대학에서 비정규직 시간강사로 일하는 저자의 부끄러운 고백이다. 저자가 본 지방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이 절대 아니었다. 기민하게 자본의 논리에 영합해 인문학은 돈 안 되는 학문으로 폄하하고 대학원생도 '열정페이'만 강요받는다. 사회의 최소 안전망인 4대 보험도 당연히 제외된다. '신자유주의에 물든 우리 사회의 민낯이면서 신자유주의가 바꾼 필연적인 풍경'이라는 게 저자가 평가하는 지방대학의 얼굴이다.

불과 30여 년 전인 1994년. 일본 최고의 사립대인 와세

다가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차입금만 390억 원. 획일적인 교육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영으로 일관했던 와세다의 면면을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수많은 낭비와 교직원들의 특권, 인건비도 과다했다. 이때 등장한 이가 증권사 출신 세키 쇼타로. 그는 취임하자마자 모든 특권을 박탈하고 필요 없는 경비를 삭감했다. 대신 와세다의 정신을 살리고 학생을 위한 투자에는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노력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와세다는 지금 일본에서 제일 건강한 대학으로 성장했다. (세키 쇼타로 황 와세다 대학의 개혁)

신학기를 맞아 대다수 광주·전남지역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개강을 맞았다고 한다. 가장 큰 원인은 학생 수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다. 대학 스스로의 경쟁력이 떨어진 탓도 크다. '와세다 대학의 개혁'을 번역한 당시 부산대 전호환 총장은 "대학의 위기를 외부로 돌리지 말고 대학 구성원 스스로 개혁과 혁신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88만 원 세대보다 더 힘들게 사는 시간 강사, 자본에 영합한 신자유주의는 지금의 지방대를 만든 주범이다. 지방대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대학의 가치는 대학 스스로 만든다'는 쇼타로의 조언이 묵직하다.

이용환=논설위원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www.jnilbo.com m.jnilbo.com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